

김영애 법사의
안심뜰
㉒ 너를 이롭게 하는 게 나를 이롭게 하는 길

울타리 사라지면 온 우주가 '나'

지난 주에 법당을 처음 찾은 20대 청년분들과 하루 종일 즐거운 시간을 가지면서 그들의 소구점과 눈높이에 맞추어 공간에 대한 이름을 지어보았다. 20대들의 힙한 놀이터 '템플스카!'. 스카는 '스터디카페'의 줄임말이다. 부처님 계신 공간에서 예불도 모시고 공양도 하고 책도 보고 글도 쓰며 편안한 충전의 시간을 가졌다. 일주일 만에 다시 이곳을 찾은 스물다섯 살의 청년은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을 왜 해야 하는지 모르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라고 고민을 털어놓았다. 비단 이 청년만의 고민은 아닐 것이다.

그런데 나의 일과 사업, 나의 성장과 성공을 위해 나아간다고 말할 때, 공통분모인 '나'에 대해 우리는 얼만큼 알고 있을까? 내가 누구인지, 뭐를 좋아하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야 그에 맞는 나의 일과 사업도 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자칫 부모님의 기대나 주변의 권유에 따라, 혹은 성공한 누군가의 말에 따라 시작하다 보면, 중간에 어려움이 닥치거나 물러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내가 과연 이 일을 왜 하고 있는지 회의가 들고, 앞으로 나아갈 힘을 잃는다. 열심히 노력해도 동기부여가 되지 않아 지속력이 떨어지고, 일의 목적과 의미를 찾지 못한 채 좌절하게 된다. 거기다 일이 잘 풀리지 않는 원인을 남에게서 찾고 원망까지 하게 되면 상황은 더 힘들어진다.

우리는 흔히 내 힘으로 살아간다고 착각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우리를 '무한히 살려지는 존재'라고 알려주신다. 목숨이 호흡지간에 달려 있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숨을 들이쉰 후에 내쉬지 못한다면, 그리고 내 쉰 후에 숨을 들이마시지 못하다면 우리의 육신 활동은 정지된다. 숨이 막히면 목숨이 끊어지는 것이다. 내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 코를 통해 들어온 공기는 내 몸을 돌고 나가고, 태양의 빛이 없다면 캄캄한 암흑 속에서 공포에 떨고 있을 텐데 햇빛 덕분에 세상을 볼 수 있고 안온함을 느낀다. 너무나 당연시 여기는 공기와 햇빛만으로도 온 우주가 나를 살려주고 계심을 느낄 수 있다.

그렇게 무한한 살려짐의 은혜 속에 있는 소중한 존재가 나인데, 이 사실을 간과하니 스스로를 모자라고 부족한 존재라 착각한다. 부처님께서는 깨치신 후에 '이 세상 모든 존재는 지혜와 복덕이 구족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다. 그러니 부족감에서 출발하지 말고, 이미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다는 것에서 출발해보자. 어떤 능력을 더 갖추든 못 갖추든 우리의 참생명은 이대로 무한한 가치를 지닌다. 그러니 세상을 이롭게 하는 생명력을 드러냄에 있어 나의 개성과 인연에 맞게 배우고 익혀, 아직 발현되지 못한 참생명의 능력을 꺼내쓰는 기회로 삼아보자. 그렇게 관점

나와 너가 연결됨을 깨달으면
삶의 방향 놓치지 않게 될 것

을 바꾸게 되면 설령 진척이 더디고 기대했던 만큼의 성과가 나타나지 않아도 남과의 비교심에 힘들거나 조급한 마음으로 인해 스스로를 괴롭히지는 않을 것이다.

뭇생명의 이익을 위해 사는 보살은 'for me(나를 위함)'에 초점을 두지 않고 'for you(너를 위함)'에 초점을 둔다. 너는 나를 비추어주는 거울이요, 너라는 이름의 또 다른 나이다. 씨줄과 날줄이 촘촘히 얽힌 그물망처럼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다. 그물코 하나를 잡아 올리면 그물망이 다 딸려오듯이, 하나의 그물코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고, 따로 나뉠 수 없는 그물망 전체인 것이다. 나 따로 너 따로가 아니며, 우리는 동시적 존재이고 연기적인 존재이다. 그렇기에 너를 위하는 것이 곧 나를 위하는 길이다.

우리가 어떤 공부를 하든, 일을 하든 그것이 진정으로 나 자신을 위한 길이 되려면 나만의 만족이나 나만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닌, 나와 남이 동시에 이롭고 행복한 것이어야 한다. 나와 네가 따로가 아니기에 너만을 위해 내가 희생되어서도, 나만을 위해 네가 희생되어서도 조화롭지 못하다고 할 수 있다. 너와 내가 함께 잘 되는 Win Win(윈윈)이야말로 진정한 조화다. 사업을 하더라도 내 이익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네가 이롭고 편안할 수 있을까를 앞에 두어보자. 나를 위한 수단으로 너[고객]를 보는 게 아니라, 너를 잘되게 하고 행복하게 하려다 보니, 나의 이익과 행복이 결과적으로 따라오는 원리로 임해보자.

대표법사이신 여여법사님께서는 '보살은 원인을 두려워하고, 중생은 결과를 두려워한다'는 법문을 늘 강조하신다. 어떤 원인을 짓느냐에 따라 결과는 저절로 따라오는 것이기에, 바라는 결과가 있다면 원인에 집중하여 부지런히 원인을 지어보자. 복을 받기 원한다면 복을 지으라는 말씀처럼 지금 현재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말과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은 달라진다. 그 어떤 것도 결정된 것은 없으니 미리 포기할 것도, 두려워할 것도 없다.

이 일을 왜 해야 하는지 모를 때, 내가 왜 사는지 모를 때 자신에게 물어야 한다. 그 일을 하는 나는 누구인지, 삶을 살아가는 나는 누구인지, 그리고 나와 너의 관계는 무엇인지를. 나를 중심으로 한 틀 속에서 남과의 경계와 울타리를 가지고 살아가지만, 울타리가 사라지면 온 우주는 곧 내가 된다. 어려움이 닥쳐와도 너 때문에 힘들다가 아니라 네 덕분에 감사하다는 마음으로 언제나 세상을 이롭게 하는 삶의 방향을 놓치지 않게 될 것이다. 나무아미타불!

(금강경법문 온라인 공부문의 bowon9@hanmail.net)
〈문사수법회 법사〉

건강 365
㉘ 영상 검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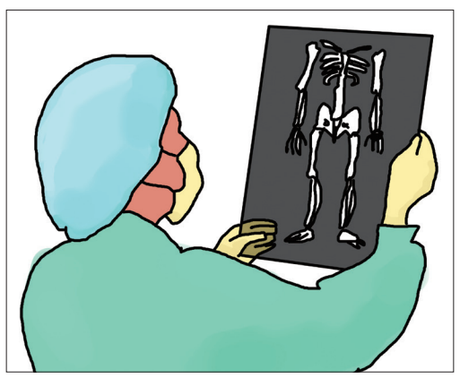
뼛속 질병 찾는 영상 검사, 뭐가 있을까?

정형외과를 처음 방문하게 되면 여러 가지 영상 검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대부분 촬영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검사를 시행하게 되지만 환자가 많거나 바쁠 때는 설명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영상 촬영 먼저 하는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외래에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지 못하고 바쁘게 진료를 보는 점에 대해 항상 환자들께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물리적인 한계가 있을 때가 많습니다. 이에 이번 지면을 빌려 영상 검사의 종류와 이유를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제일 먼저 **엑스레이 촬영(X-ray, 일반 방사선 촬영)**을 설명하겠습니다. 이는 정형외과에 처음 오시면 대부분 찍는 기본적인 뼈 검사입니다. 뼈의 문제 여부에 따라 치료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제일 먼저 확인해 보는 검사입니다. 또한 상대적으로 빠르고 간단하고 저렴하게 촬영할 수 있어 가장 많이 하는 검사이기도 합니다. 환자가 다쳐서 병원에 방문할 때, 엑스레이 검사를 통해서 먼저 골절이나 탈구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친 경우가 아니더라도 관절이 아파서 병원에 오면 기본적으로 엑스레이 촬영을 통해 퇴행성 변화가 있는지, 있다면 어느 정도 있는지, 그로 인한 뼈의 변형 정도를 확인합니다. 또한 뼈의 전체적인 정렬(예를 들면 오다리, 엑스다리, 척추측만증, 거북목 등)을 살피기도 합니다. 하지만 뼈 이외의 구조를 보기 힘들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미세 골절이나 뼈가 많은 구조에서 뼈가 겹치면 골절이 있더라도 확인이 힘들 수 있습니다.

컴퓨터 단층촬영 검사(CT 촬영)입니다. 컴퓨터 단층촬영 자체는 뼈를 좀 더 자세히 보기 위한 검사입니다. 주로 골절이 진단되면 뼈의 골절 정도를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 촬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골절의 전위 정도, 골편의 위치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특히 골절 등으로 뼈 수술이 잡히면 뼈의 위치 관계를 정확히 확인하고 수술 계획을 세우기 위해 촬영을 합니다. 또한 임상적으로 골절이 의심되나 엑스레이 촬영에서 골절이 안 보이는 경우 해당 검사로 정확히 진단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엑스레이에서는 병변이 없지만 컴퓨터 단층 촬영에서 골절을 발견하는 때도 흔히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자기공명영상을 찍을 수 없는 경우에 대체제로써도 촬영합니다. 하지만 컴퓨터 단층촬영 역시 뼈 이외의 연부조직을 정확히 확인하기는 힘들며, 방사선 조사가 엑스레이보다는 상대적으로 많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엑스레이, CT, 초음파, MRI
영상 검사마다 장단점 달라

초음파 검사(US 검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초음파 검사는 뼈 이외의 연부 조직(주로 인대, 힘줄, 근육 등)을 확인하기 위해 촬영합니다. 검사가 간편하며, 빠르게 진행할 수 있어 외래에서 큰 문제가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실시합니다. 실시간으로 촬영할 수 있어 관절의 움직임에 따른 조직 변화 양상을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초음파 이외의 검사는 모두 정적인 상태에서 촬영돼 위치 관계에 따른 변화 양상을 알 수 없지만 초음파 검사는 가능합니다. 또한 초음파를 통해 주사를 놓으면 정확한 위치에 놓을 수 있어 치료 효과도 좋으며, 바늘로 조직을 여러 번 찌르지 않아 통증도 덜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방사선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몸에 무리가 없는 검사입니다.

하지만 다른 검사에 비해 정확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깊은 구조물은 확인이 힘듭니다. 또한 초음파는 뼈를 통과하지 못하기 때문에 뼛속이나 관절 내부의 구조물을 볼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기공명영상 촬영(MRI 촬영)**을 설명하겠습니다. 자기공명영상 촬영은 연부조직 및 뼈 모두를 볼 수 있는 검사입니다. 주로 근육, 힘줄, 인대, 신경, 혈관 등의 연부 조직의 병변을 확인하기 위해 촬영합니다. 정확도가 가장 높고, 깊은 구조물, 뼛속, 관절 내부 모두를 볼 수 있어 검사의 최종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기장을 이용하기 때문에 방사선 위험이 없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촬영 시간이 상대적으로 길고 좁은 공간에 있어 폐소공포증이 있으면 찍기 힘들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진정제 등을 사용하여 촬영하기도 합니다. 고가의 장비로 오랜 시간 촬영하기에 검사비가 비싼 편입니다. 그리고 인공 심박동기나 인슐린펌프 등 기구가 몸속에 있으면 촬영이 불가합니다. 이는 자기장을 이용하기 때문에 금속이 자기공명영상 촬영 기계 근처로 접근하면 자석에 쇠가 붙듯이 딸려 들어가게 돼 위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인공지능 영상 기술(AI 기술)**이 도입돼 촬영 시간은 줄이고 영상 화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민영경
거인병원 병원장

거인병원 Geo-in Hospital
051)996.7000
동래 사직운동장앞
어깨·관절·척추, 정형외과 중점진료
세분화된 진료로 진단부터 치료까지!
광고심의필: 230622-중-155173
현대불교신문과 협약에 따라
구독자 비급여 10% 할인 제공
문선애 마취통증의학과 | 김종열 신경외과 | 최홍준 신경외과 | 이승준 대표원장 정형외과 | 민영경 병원장 정형외과 | 김상효 정형외과 | 박지혜 내과 | 염동헌 영상의학과
보호자·간병인 걱정없는 전병동&전병상
24시간 간호×간병 통합서비스